고흥군, ICT 기술로 치매 실종 예방

군·고흥경찰·SK텔레콤 협약…중증 100명 우선 시범 대상
실시간 환자 출입 여부 확인…보호자에 즉시 경고 알림 전송

고흥군이 전남 최초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중증 치매 노인 실종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 6일 고흥군과 고흥경찰서·SK텔레콤 컨소시엄(SK브로드밴드, SK쉴더스)의 'ICT 기반 치매노인 출입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흥군은 대상자 선정과 장비 설치 지원 등 행정적 업무를 맡고, 고흥경찰서는 현장 출동과 대응 및 안전망 구축을 담당한다. SK텔레콤 컨소시엄은 출입 감지 기기 제공 및 설치, 시스템 운영, 보안·데이터 관리 등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이로써 치매 노인 거주 가구의 출입문에 감지기기를 설치해 실시간 치매 노인 출입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만일 집을 나가게 되면 보호자에게 즉시 경고 알림이 전송됨으로써 치매 노인 실종을 사전 예방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 도입은 전남 지자체 중에서는 고흥군이 처음이며, 군의 선제적 대응이 치매노인 실종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중증 치매 환자 중 100명을 우선 시범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한 뒤, 효과 분석을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업무협약식에는 공영민 고흥군수, 공정원 고흥경찰서장, 하명복 SK텔레콤 서부마케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중증 치매 노인의 실종은 개인과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에 큰 불안과 부담을 초래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ICT 기술 기반의 정밀한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고, 치매로부터 안전한 고흥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전어의 계절' 보성에 추억 잡으러 오세요

22·23일 율포솔밭해수욕장서 축제
전어 잡기·노래자랑·공연 등 다채

보성전어축제가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율포솔밭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축제 모습.

'보성전어축제'와 '회천면민의 날'이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율포솔밭해수욕장 일원에서 통합 개최된다.

회천면민회가 주최하고 보성전어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통합 축제는 '감쪽같은 전어축제! 화합의 장!'이라는 주제로 보성의 대표 수산물인 전어와 회천면 특산물 감자·쪽파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종합 지역 특산물 축제로 기획됐다.

특히 전어축제의 백미인 전어 잡기 체험은 올해부터 안전성을 강화해 율포솔밭해수욕장 개매기장 대신 해변에 마련된 대형 풀장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시원한 물속에서 살아 있는 전어를 맨손으로 잡는 짜릿함을 만끽할 수 있으며, 잡은 전어는 현장에서 바로 구워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고, 포슬포슬한 찐 감자, 향긋한 쪽파 요리와도 함께 맛볼 수 있다.

전어 잡기 체험은 22일 오후 4시, 23일 오전 11시 두 차례 진행된다. 참가비는 1만 5000원이며, 이 중 5000원은 행사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환급된다. 초등학생 이하는 무료다.

첫날인 22일은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면민 노래자랑, 전어 잡기 체험, 평양예술단 공연, 관광객 어울림 한마당이 이어진다.

둘째 날인 23일에는 전어 잡기 체험, 관광객 어울림 한마당, 보성군립국악단 공연이 펼쳐져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행사장 곳곳에는 농특산물 전시·판매 부스, 감자·해물파전·옥수수·새우구이 등 먹거리 장터, 어린이 체험 부스, 전어·감자·쪽파 캐릭터 포토존 등이 운영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보성의 9미 중 하나인 전어는 저칼로리·고단백 식품으로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체중 조절과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특히 잔가시에는 우유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칼슘이 함유돼 성장기 어린이와 건강 관리가 필요한 이들에게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여수 여서동·문수동 일방통행 신규 지정

여수시가 교통 흐름 개선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여서동과 문수동 일대 2곳을 일방통행로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3길 6 → 여서로 146 ▲문수로 94 → 여서1로 75 구간이다.

해당 구간은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반면 도로 폭이 좁아 교통 혼잡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인근에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해 있어 주민과 상인들로부터 개선 요구가 꾸준히 이어졌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교통 체계 개선을 추진했으며, 여수경찰서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현장에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교통 체계에 대한 안내 활동을 실시했다.

지정된 방향으로만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반대 방향으로 진입할 경우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편의와 지역 경제를 고려한 맞춤형 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 중마시장, 지역상품권 환급 문전성시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상품권으로…2일만에 700만원 환급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광양시가 참여해 추진하는 '2025년 여름휴가철 전통시장 농축산물 할인지원 환급행사'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 〈사진〉

시는 행사 시작 이틀째인 지난 8월 5일까지 총 700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환급될 정도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한 시민들의 방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는 중마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일정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이번 행사는 현금, 카드, 온누리상품권은 물론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해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오는 9일까지 계속된다. 환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행사 기간 중 중마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 영수증을 행사 부스에 제출하고 본인확인을 거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농협 조합장 27일 보궐선거

12·13일 후보 등록…현 조합장 직무대리 등 2파전 유력

노성원(69) 구례농업협동조합장이 지난 7월 29일 자진 사퇴함에 따라 오는 27일 조합장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투표 장소는 구례읍과 토지면, 광의면 3개소이다

4일 구례농업협동조합과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후보자 등록을 하고, 14일부터 26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간다.

이번 보궐 선거는 2023년 3월 치러졌던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 운동으로 재판중인 노 전 조합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임해 이뤄지게 됐다. 선거는 모든 조합원이 직접 비밀투표로 한다.

차기 조합장 후보로는 3~4명이 자천 타천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구례군 농업기술센타 과장을 역임하고 현재 조합장 직무대리중인 이사 A씨와 농협 대학 출신으로 구례농업협동조합 상무급 간부 직원으로 퇴직한 B씨가 유력한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자 대결이 유력한 가운데, 이번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전임 조합장의 잔여 임기인 2027년 3월 20일까지 구례농업협동조합을 이끌게 된다.

한편 구례농업협동조합은 구례읍을 비롯해 문척·간전·토지·마산·광의·용방면 등 1읍 6개면 45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구례군 내 최대 농업협동조합이다. 현재 120여명의 임직원이 8000억원의 자산으로 신용·경제·농촌지도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순천시, 치매 어르신 400가구에 건강꾸러미

순천시가 무더위 속 외진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치매 어르신 400가구를 대상으로 건강꾸러미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치매안심센터의 돌봄사업 일환으로 지난 4일부터 2주간 진행되며, 꾸러미에는 영양식 6종과 냉감이불이 포함됐다.

특히, 여름철에도 여전히 겨울용 두꺼운 이불을 사용하는 가구들이 있어 냉감이불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일부 열악한 가정에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순천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 웰다잉,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정서적 돌봄을 확대하는 한편, 치매약제비(최대 월 3만원)·검사비(최대 28만원) 지원 확대 등 경제적 부담 경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전남 최초로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기저귀 등 조호물품 지원 기간을 확대할 계획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보다 실질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